

# 濟州島 流配期の 金允植

姜 在 彦\*

目 次	
1. 金允植의 略傳과 思想	3. 金允植이 본 房星七亂
2. 濟州島에서의 流配生活	4. 金允植이 본 李在守亂

## 1. 金允植의 略傳과 思想

金允植이 제주도에서의 유배생활을 한 것은 1898년 1월부터 1901년 7월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제주도의 격동기여서 房星七의 亂과 李在守의 亂이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金允植은 1896년 2월에 붕괴된 金弘集 內閣의 外部大臣이었다. 그 전년의 1895년 10월에는 일본인에 의한 閔妃弑害사건이 있었고 또 11월에는 단발령이 있어서 반일감정이 격화되고 일부 지방에서는 유생들의 擧에 호응하여 반일 의병투쟁이 번져갔다. 1896년 2월에 고종의 俄館播遷이 있는 후 金弘集 內閣은 서울시민들의 반일봉기에 의하여 붕괴되고 겨우 京畿道 廣州郡 芳蔭洞에 은신하여 謹身待罪하던 그는 1897년 12월 21일에 제주도에서의 종신 유배가 결정되었다.

金允植은 淸風金氏로 仁祖·孝宗시기 領議政을 지낸 金堉의 後裔이다. 그의

\* 日本京都 花園大學 教授, 文學博士

字는 洵卿, 號는 雲養이며 1831년에 서울 교외 豆胡란 시골에서 부친 金益泰와 全州李氏 사이에 장남으로서 태어났다.

그러나 高祖 金守默이 縣監으로 있을 때 犯法하여 定配된 이후 대대로 관직을 못하여 집안생활이 「家貧如洗」했다고 한다. 그러나 1842년에 불행하게도 양친과 사별하게 되어 叔父 金益鼎宅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후일 개화파로서 활약한 金晚植은 金益鼎의 아들로서 친형제같이 어린 시절을 지냈다. 金允植은 叔父宅으로 옮긴 후 비로소 학문하기에 좋은 조건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金允植을 전통적인 한학자로서 키운 인물은 兪莘煥(號-鳳樓, 1801~59)이며 개화사상가로서 키운 인물은 朴珪壽(號-瓊齋, 1807~77)라 하겠다. 兪莘煥은 전통적인 經學과 史書에 밝은 학자로서 그 문하에서 閔奎鎬·閔奎鎬·金晚植·金允植·南廷哲 등이 배웠으며 후일에 兪吉濬을 가르친 兪萬柱도 그의 門下다.<sup>1)</sup>

金允植이 朴珪壽를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언젠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871년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입한 辛未洋擾 당시 그가 선생을 모시고 있을 때 선생은 우리측으로부터 「孤立之患」을 면하기 위하여 자진해서 結交를 청해야 할 터인데 「閉門却好」(문을 닫고 軒호를 물리침)가 웬 일인가고 탄식하더라는 회상을 생각할 때 그 이전 시기일 것이다.<sup>2)</sup> 두 말할 나위도 없이 朴珪壽는 근대 한국의 개화사상의 源流이며, 그 문하에서 金允植·金玉均·朴泳孝·洪英植·兪吉濬 등이 심각한 사상적 영향을 받은 개화파의 중심인물들이다.

1874년에 과거 문과에 급제한 그는 여러 가지 관직을 역임한 후 1881년에는 領選使가 되어 38명의 외국어 및 기술유학생을 데리고 天津機器廠 南局 및 東局 기타에 유학시키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12명의 朝士를 중심으로 한 紳士遊覽團이 일본을 방문하여 兪允中의 수원 兪吉濬·柳正秀는 福澤諭吉의 慶應義塾, 尹致昊는 中村敬宇의 同人社에 유학하고 있다. 福澤이나 中村은 明治 초기 일본의 저명한 근대적인 계몽사상가들이다. 金允植은 이 때부터 청나라 北洋大臣 李鴻章을 비롯하여 洋務派 官僚들과 친분을 갖게 되고 金玉均 등이 일본의 明治維新을 한국 근대화의 모델로 한 것과는 달리 「中體西用」을 슬로우전으로 하는 청국의 洋務運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兪東濬, 《兪吉濬傳》, p.19, 一潮閣, 1987年刊.

2) 朴珪壽, 《瓊齋集》 卷7, 咨文 「美國兵船滋擾咨」에 대한 金允植按文.

따라서 필자는 일찌기 종래 개화파를 온건파와 급진파로 갈라서 보는 것보다는 사상적 내용으로 봐서 改良的 開化派와 變法的 開化派로 갈라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고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sup>3)</sup>

「우리는 일반적으로 金弘集·金允植·魚允中 등을 온건적 개화파라 하고, 金玉均·朴泳孝·洪英植·徐光範 등을 급진적 개화파라 한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집권층으로서의 수구파에 대해서 온건적이나 급진적이나 하는 자세의 차이만이 아니라, 실은 본질적인 사상적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양자는 다같이 개화파에 속하지만 전자를 改良的 開化派, 후자를 變法的 開化派라고 보는 것이 그 사상적 성격에 비추어 적절할 것이다.」

金玉均을 비롯한 변법적 개화파는 청국에 대한 사대주의와 국내정치의 변법적 개혁을 위하여 수구파 정권과 타협의 여지없이 대결하였다. 그 연장선에 1884년 12월 4일의 갑신정변이 있었다. 그러나 金允植은 적어도 甲午改革 때까지는 대외적으로는 청국과의 사대관계, 대내적으로는 수구파 정권과의 타협 속에서 점진적인 개량적 개혁을 기도하였다. 그와 같은 정치적 입장은 그의 東道西器的인 사상적 성격과 내적으로 관련된다. 그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를 통렬히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sup>4)</sup>

「甲申諸賊 盛尊歐洲 薄堯舜 貶孔孟 以彝倫之道 謂之野蠻 欲以其道易之 動稱開化 此可謂天理滅絕 冠履倒置矣 士君子尚可掛口頭乎 此云開發變化者 文飾之辭也 所謂開化者 即時務之謂也」

金允植의 견해에 의하면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는 몹시 西洋을 숭상하면서 堯舜 孔孟의 人倫을 야만시하고 그것을 서양식으로 고치는 것이 開化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天理를 절멸하고 冠과 履(신발)를 거꾸로 하는 것이니 士君子로서는 도저히 입에 걸어서는 안 될 말이다. 開化란 다만 時務를 말한 것이다 라고.

3) 姜在彥, 《韓國의 近代思想》(한국어역본) p.110, 한길사, 1985. 같은 저자 《韓國의 開化思想》(한국어역본) pp.210-211, 比峰出版社, 1981.

4) 金允植, 《續陰晴史》 高宗28年 辛卯 2月條. 國史編纂委員會刊.

뿐만 아니라 그는 明治維新에 의한 일본의 급진적인 변화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이다. 그는 領選使로서 유학생들을 데리고 청국을 방문했을 때, 天津機器廠總辦 劉蕪林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5)</sup>

「余曰 日本之人 善變化 其國與敵邦慶尙相隣 其人文之開 由我嶺南儒林之風 嗣後 購買中華經籍 彬彬多文學之士 及聞洋夷之風 又突然盡變 可謂下喬木而入幽谷也  
劉曰 日本內知之民 未變者尙多 將來日王之失 亦在此也  
余曰 非徒法制 衣冠正朔之改 并掃文字 日本亦東方文明之區 其老師宿儒 潦倒 田間者 必多憤鬱之志 雖云富強 未可謂得民和也」

즉 그의 明治維新觀은 일본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여 종래는 우리 나라 嶺南學派의 영향을 받고 또 중국으로부터 經籍을 구입하여 「文學之士」가 彬彬했는데, 「洋夷之風」을 듣자마자 돌연히 변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喬木을 떨어뜨리고 幽谷으로 들어가는 격이다 라고.

여기에 대하여 劉는 일본 내부에는 변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터인데 일본천황의 실수는 여기에 있을 것 같다.

金允植은 다음과 같이 맞장구를 친다.

일본은 法制뿐만 아니라 衣冠正朔까지 바꾸어서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일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역시 「東方文明之區」인지라 老師宿儒들이 草野에 파묻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울분한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富強을云云하지만 民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와 같이 金允植은 그 日本觀이나 明治維新觀에 있어서 청국의 洋務派 관료와 완전히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며, 낡은 권력의 타도에 의한 급진적인 變法的改革을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881년을 고비로 해서 金允植과 金玉均은 朴珪壽의 同門이면서 양자간의 개화사상의 내용은 판이하게 다르게 된다.

그러나 갑신정변 후 수구파 정권내부에서의 金允植의 정치적 입장은 매우 어렵게 되어 1887년 5월에는 忠淸道 沔川에 유배되어 있다가 1894년 7월에 金弘集 內閣이 성립되자 그 外部大臣으로서 갑오개혁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5) 金允植, 《陰晴史》 高宗 19年 壬午 2月條.

## 2. 濟州島에서의 流配生活

제주도는 옛날부터 중앙정계의 음모와 갈등에 실망한 사람들의 落鄉地였을 뿐만 아니라 士禍 黨爭에 패배한 사람들의 流配地이기도 하다. 朝鮮王朝가 解體되기 시작한 19세기의 격동기에 한정해 보더라도 제주도에 유배된 阮堂 金正喜, 勉菴 崔益鉉, 重菴 金平默, 雲養 金允植, 錦陵尉 朴泳孝 등을 빼고는 당시의 사상사나 정치사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金允植이 제주도에서의 終身定配를 언도받은 것이 1896년(光武元年) 12월 21일이요, 다음 해(光武2年) 1월 6일 仁川에서 龍海艦에 탑승하여 1월 11일에 山地浦에 하륙하였다. 그 때로부터 智島에로의 移配가 결정되어 山地浦를 떠난 것이 1901년(光武5年) 7월 10일이다. 따라서 그가 제주도에서 생활한 것은 5년 6개월이 된다.

金允植은 역시 제주도에서의 終身定配의 언도를 받은 前判書 李奎瑞(一名 承五)와 더불어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당시의 제주도 牧使는 李東輝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牧使의 밑에는 濟州·大靜·旌義의 三郡이 있었고 각각 郡守가 관할하고 있었다. 양인은 입도하자마자 入獄했는데 露館播遷을 전후한 정치적 갈등을 반영하여 이미 옥중에는 去年 3월에 終身 혹은 10年流配의 언도를 받은 徐周輔(前 參書)·鄭丙朝(前 洗馬)·金經夏(前 承旨)·李範疇(前 謂原郡守)·李台瑢(前 副尉) 등 친지들이 수감되고 있었다.

入獄된 다음 날에는 옥문이 열려 漢拏山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 감동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漢拏山은 眼前에 있었다. 邑과의 距離가 20里, 그 꼭대기까지는 70리가 된다. 一名 頭圓山이라 한다. 一望하니 平原 속의 邱陵과 같아 그리 높고 험하지 않다. 그러나 積雪이 皎然하여 여름에도 녹지 않는다 한다. 가히 그 清涼함이 凡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金允植은 李奎瑞와 더불어 수감된지 40일에 보석이 되어 濟州郡 校洞에 있는

6) 앞에 든 책, 《續陰晴史》光武2年 戊戌 1月 12日條.

金應斌(判官)宅으로 옮긴다. 金應斌의 兄 應銓은 忠淸道 海美縣監을 지냈기 때문에 「金海美」라 하여 朝天에 거주하고 있었다. 金允植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sup>7)</sup>

「家屋은 넓고 아름다우며 几案도 淨潔하고 또 花園이 있어서 散步하기 좋다. 主人의 대접이 좋고 厚하여 음식도 豐美하고 입에 맞아서 서울 맛이 아닌 게 없다. 謫客의 신분으로서는 오히려 過濫하다.」

당시 제주도에 유배된 謫客은 이미 13명이나 되고 있었는데 1898년 4월에는 새로 개화파에 속했던 呂圭亨(前 承旨)·李源兢(前 府使)·安沂中(前 郡守) 등이 10年流配의 언도를 받아 제주목에 定配되었다. 「濟州謫人들이 날로 증가되어 一島가 充만될 것 같다고 한 번은 웃고 또 탄식하였다. 당시 趙秉式·閔種默을 비롯한 親露의 守舊派와 독립협회와의 정치적 대결이 격심한 시기라, 제주도에 유배되는 謫人이 수도 날로 증가되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金允植이 본 濟州邑 城內外의 景觀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觀德亭과 그 앞 거리의 경관은 다음과 같다.<sup>8)</sup>

「亭은 殿閣之制를 따라 雄偉하고도 높으며 亭額을 安平大君(第四代 世宗의 第三子인 왕자)의 글씨다. 亭前의 大路 양편에는 公廡가 즐비하다. 그러나 甲午 更張이후 吏校數가 크게 줄어서 각 관청은 거의 空房이 되고 말았다. 아까운 일이다.」

또 濟州城의 北門 밖에는 三泉齋가 있어서 「是邑儒之所會也」로 되어 있었다. 그 後園에 拱辰亭이 있었는데 그 경관은 다음과 같다.<sup>9)</sup>

「後園에 있는 拱辰亭에 오르니 北쪽은 大海에 연달아 있는데 때마침 바람은 없고 파도는 고요했다. 漁船 5,6隻이 바다 가운데 떠서 潛女 數三十人이 베를 지어 물 속에 들어간다. 아양 있게 노래 부르며 헤엄쳐서 깊은 바다로 나아가니 다

7) 같은 책, 光武2年 戊戌 2月 20日條.

8) 같은 책, 光武3年 己亥 4月 27日條.

9) 같은 책, 光武2年 戊戌 4月 15日條.

만 검은 머리만이 出沒하는 것이 마치 鳧鷖가 물결 속에 목욕하는 것 같다. 또 옛목을 타서 물고기를 낚는 사람도 있다. 머리를 숙여서 石城의 주변을 보니 水口에 만든 虹霓門을 통하여 왕래하고, 水門 밖에는 百頃이나 되는 못이 있다. 春水가 灑灑여 鳧鴨가 즐지어 놀고 제방 위에는 버드나무가 푸르며 물가에는 人家가 있어서 桃花가 곳곳마다 만발한 광경이 마치 그림과 같다. 亭 밑에 三泉이 있어서 泉質이 매우 좋아 亭名이 여기서 나왔다. 물을 떠서 茶를 끓이니 상쾌한 맛이 脾에 스며든다.」

大院君에 의한 書院 撤廢令에 의하여 橘林書院이 철폐되었다. 그 遺墟에는 敬信齋(五賢壇)가 있었다 한다.<sup>10)</sup>

「敬信齋는 南城 밑에 있어 前日의 橘林書院의 遺墟다. 橘林書院은 冲菴(金淨)·圭庵(宋麟壽)·淸陰(金尙憲)·桐溪(鄭蘊)·尤庵(宋時烈) 五先生을 享祀하는 곳이다. 전에 朝令에 의하여 철폐된 후 邑儒들이 片石五位를 세워서 月朔에 焚香하여 敬慕의 뜻을 표시했다. 講堂 遺墟에 집을 지어 扁額에 敬信齋라 쓰고 訓長 李基瑛이 살면서 지키고 있다.

齋中에는 藏書가 數百卷이 있고 遺墟에 비석을 세워 五賢의 事蹟을 기록하고 있다. 舊牧使 張寅植이 지은 것이다. 南壁上에 曾朱壁立이란 四字를 새겼다. 또 光風臺란 三字가 있다. 전에 趙靜軒(貞喆)의 《處坎錄》을 본 바가 있는데 橘林書院의 士子들이 道學을 서로 숭상하고 文風이 蔚然하였다 한다. 그 때로부터 백여년이 지나서 지금은 또다시 볼 수 없다. 臺上에는 老樹가 있어서 그 그늘이 可히 數畝가 되고 淸風이 항상 足하여 여름철에 消暑하기에 가장 좋다. 머리를 숙여서 一城을 보니 눈은 溟海에 다하고 層城은 沈寥하여 橘林과 竹樹가 左右에 翳然하니 또한 一佳境이다.」

그 때로부터 이미 80여년이 지난 오늘 이와같은 옛모습을 찾아보기란 어려울 것이다. 이 외에도 三姓穴, 「紗峰落照」의 沙羅峯, 「龍淵夜帆」의 龍淵, 「瀛邱春花」의 瀛邱, 判書井 등 謫客과 島人名士들을 벗삼아 두루 관람하면서 酒宴을 벌려 詩를 읊고 바둑을 즐기면서 도저히 終身定配란 重罪人의 생활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金允植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金應斌宅에 寄居하다가 1898년 여름에는

10) 같은 책, 光武2年 戊戌 4月 17日條.

「炊飯澣濯之任」에 충당하기 위하여 娶妾하여 義室이라 하였다. 동시에 李允成家를 850兩으로 구매하여 독립하게 되었으며 1899년 6월에는 생남하여 그 이름을 「瀛駒」라 하였다 한다. 비록 서자이지만 자기 친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부치는 그의 심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유배생활의 심심풀이로 「橘園」이란 詩社를 만들어 1898년 5월에는 詩會者 李承五(號-三隱)·李容鎬(我石)·韓善會(塘雲)·鄭丙朝(葵園)·徐周輔(養泉)·黃炳郁(筱雲)·鄭顯龜(霞山)·李喜爽(李容鎬의 아들)의 詩를 모아 吳慶林(筠庭)이 詩軸 첫머리에 梅花를 그리고 李承五가 隸書로 《橘園雅集》라 쓴 시집을 펴냈다.<sup>11)</sup> 이러한 詩會는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1901년(光武5년) 舊正(양력 2월 19일) 현재 제주도의 謫客은 1897년에 유배된 徐周輔(前 參書)·鄭丙朝(洗馬)·李範疇(渭原郡守)·金經夏(觀察使)·李台瓚(副尉)의 5인, 1898년에 유배된 李容鎬(校理)·韓善會(參書)·金恩燦·張允先(監察)의 4인, 1895년에 유배된 崔亨順과 1897년에 유배된 金允植을 합하여 11명이다. 李承五는 지난 해에 死居하였다.

### 3. 金允植이 본 房星七亂

金允植의 《續陰晴史》에는 당시 제주도에서의 謫客의 생활 모습, 제주도민들의 생활형편과 풍속, 제주도에서의 지방정치의 生態를 아는 데도 귀중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역사 혹은 제주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1898년의 房星七亂과 1901년의 李在守亂의 渦中에서 체험한 사실을 일기체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房星七亂은 1898년 3월 1일에 시작되었으나 이미 2월부터 牧使 李秉輝에 대하여 房星七을 狀頭로 하는 제주도민들이 火田稅, 馬場稅, 戶布의 過棒, 관청에 의한 社還米의 농간에 반대하여 항의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李秉輝는 전형적인 탐관오리로서 오래전부터 도민의 원성이 드높았다. 그는 도민들의 等訴에 대하여 아랑곳 없이 아무런 시정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은밀히 朝天浦에서 60명의 壯丁들을 모집하여 기회를 봐서 탄압하려는 음모를

11) 같은 책, 光武2年 戊戌 5月 22日條.

濟州島 流配期の 金允植

꾸미고 있었다. 房星七은 3월 1일에 姜辟穀·鄭先馬와 더불어 수백명의 火田民을 선발하여 親軍으로 삼고 三郡(濟州·旌義·大靜)의 군중에 호소하여 머리에는 白巾을 두르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어 제주성에 몰려 들었다. 李秉輝와 大靜郡守 蔡龜錫은 중상을 입었으며 이병휘는 禾北으로 도망가서 관청은 텅 비었다.

房星七은 원래 전라도 同福 사람으로서 入島 후에 火田民 속에 南學黨을 만들었는데 膽力이 있고 술수를 좋아 했다 한다. 그는 謫客들을 포섭하여 「文武俱修」에 의한 제주도 자치를 의도한 것 같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12)</sup>

「濟州는 房星(天體의 二十八宿의 하나)의 分野로서 나의 姓은 房이니 이와 相符한다. 또 秘記에도 房·杜의 將이라 하였으니 相符된다. 이것이 바로 天이 아닌가.

지금 國運이 이미 쇠퇴하여 眞人이 바로 海島에서 나왔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또 濟州에는 謫客이 많아서 文武俱修하기에 오늘과 같음이 없으니 이것은 天이 나의 일에 찬성하는 것이다. 지금 일본과 러시아가 相爭하고 朝廷이 多事하니 여기로 派兵할 여유가 없다. 가령 오더라도 무서울 것이 없다.」

謫客들은 모두 피신하여 民軍의 포섭공작에 불응했으나 金洛榮과 崔亨順만이 거짓 여기에 호응하여 左右大將이 되고 각각 천 명의 民軍이 배정되었다.

房星七은 그 心腹인 鄭先馬·姜辟穀을 중심으로 한 南學黨 수백 명에게 무기에서 압수한 총검을 나누어서 御南軍으로 삼고 기타 수만의 民軍을 外陣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房星七은 모든 문제를 수명의 심복과 金·崔와 상의해서 결정하고 外陣의 민군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崔亨順은 1895년 4월에 大院君의 손자 李峻鎔을 王世子로 하여 大院君의 再執權을 계획하다가 종신정배를 당한 인물이고 金洛榮은 義禁府都事로 있다가 1897년 1월에 韓善會 등과 정부전부 음모에 가담하여 역시 종신정배를 당한 인물이다.<sup>13)</sup>

金允植과 많은 謫客들은 金應斌와 더불어 朝天으로 피난했다. 그들은 金應銓(金海美)宅에서 討賊策을 논의했다. 그러나 諸金은 「彼(民軍)有機械, 民丁皆

12) 앞에 든 책, 《續陰晴史》 光武2年 戊戌 3月 4日條.

13) 姜龍三·李京珠編著, 《大河實錄·濟州百年》, pp.101~2. 金宗業, 《耽羅文化史》, p.153. 金봉옥, 《제주통사》, p.183.

空手, 不可敵」이라 하여 응치 않았으나 應斌와 그 徒弟 應海(主事)가 우거서 朝天에 倡義所를 두고 應斌를 倡義將으로 했다. 朝天·新村에서 겨우 民丁과 砲手를 근 천 명 모았으나 民軍이 접근해 오자마자 도망치고 말았다. 民軍은 倡義所를 주동하던 諸金을 습격하여 파괴 방화하였다.

金允植과 謫客들은 金寧·杏源·終達里를 거쳐서 旌義郡 新力峯에 머물면서 일본어부의 두령 龜井多三郎과 교섭하여 木浦로 탈출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 무렵 房星七軍에 호응하던 崔亨順 및 金洛榮과 密通하게 되어 前校理 李容鎬는 그들과 房星七軍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密計를 꾸렸다.

崔와 金은 房星七에게 우리의 힘으로서는 官軍의 派兵이 있을 때 그에 적대할 수 없으니 일본의 힘을 비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濟州牧 三郡을 일본에게 領屬시킬 것을 약속한다면 將軍(房星七)을 島主로 할 것이니 官軍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 崔와 金은 일본과의 교섭을 구실로 房星七을 海上에 유인하여 살해하자는 것이었다.

房星七은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일본과의 교섭을 위하여 山地浦에서 日本小艇을 타기 위하여 親軍인 內陣에서 선발한 백여 명의 부하를 데리고 山地浦로 나간 것이 3월 20일이다. 그러나 큰 비가 오고 西北風이 강하여 出航을 못했다.

房星七 일당이 山地浦로 나간 기회를 이용하여 성내에서는 謫客 李容鎬·金恩燦·鄭丙朝가 독려하여 倡義所를 설치하고 宋斗玉 등 7명은 通文을 돌려 城中民에게 「閉城御示賊」을 호소했다. 房星七은 崔와 金이 성내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속았음을 알아 제주성 서쪽 破軍峰 밑으로 도망갔으나 살해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房星七亂은 20일만에 종결되었으나 金允植은 그 원인을 「今番民亂 皆由於前牧貪虐之致」, 즉 오로지 李秉輝의 貪虐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4)</sup>

그런데 房星七亂의 성격을 생각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핵심세력이 火田民의 南學黨에서 선발된 親軍이고 이것을 內陣(御南軍)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親軍의 내용을 보면 「火田民皆陸地人 選數百名爲親軍 自護甚密」로 되어 있다.<sup>15)</sup> 따라서 房星七亂에서의 民軍의 구성은 南學黨을 핵심세력으

14) 앞에 든 책, 《續陰晴史》光武2年 戊戌 3月 15日條.

15) 같은 책, 光武2年 戊戌 3月 1日條.

### 濟州島 流配期の 金允植

로 하고 이에 호응한 제주도민으로 外陣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房星七을 비롯해서 南學黨을 형성한 「火田民皆陸地人」이 入島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일까.

아직도 일부에서는 「東學亂」이라 말하고 있는 1894년 甲午 농민전쟁 후에 농민군의 일부 잔존세력들이 각지에 출몰하고 있는데 그들은 西學·英學·南學, 혹은 活貧黨이라 자칭하고 있다. 특히 이 농민전쟁의 발상지가 되고 있던 古阜·興德·茂長 등지에서는 1899년 5월경에 다음과 같은 民擾가 일어나고 있다.<sup>16)</sup>

「去月興德 古阜 茂長等地民擾大起 號曰英學 或稱西學 聚黨數百名 擄放獄囚 搶盜軍器 全光兩處地方隊夾攻 又康津 等地民擾亦起 木浦及各君皆戒嚴」

즉 興德·古阜·茂長 등지에서는 民擾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英學 혹은 西學이라 자칭하고 있다. 그들은 수백 명이 작당하여 獄囚를 석방하고 무기를 탈취하기 때문에 全州와 光州의 地方隊를 출동시켜 협공하고 있다. 또 康津과 海南 등지에서도 民擾가 일어나기 때문에 木浦와 각군에서戒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갑오 농민전쟁 때 일본군과 연합한 정부군은 농민군을 康津·海南까지 추격하여 탄압했다. 따라서 房星七亂의 핵심세력으로 된 南學黨 그 때 入島하여 火田民이 되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던 농민군의 余黨일 것이다. 여기서는 자세히 고증할 여유가 없지만 房星七亂을 갑오 농민전쟁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金允植은 민란이 진압된 후 金寧·朝天을 거쳐 제주읍으로 돌아왔으나 朝天의 金應銓家は 「素得民心 亂民多護之 故父子家舍幸全」 즉 民軍의 습격을 면하게 되어 그 집에서 대접을 받았다. 그가 관람해 당시의 戀北亭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sup>17)</sup>

「壁上에는 前人이 題咏이 많았으나 거무스름해서 읽을 수가 없었다. 또 淸陰先生(金尙憲)의 詩도 있었다. 亭은 해변가에 있어서 돛대가 숲과 같고 千井烟火를 俯視할 수 있으며 萬里波濤를 眺望할 수 있었다.」

16) 같은 책, 光武3年 己亥 6月 24日條.

17) 같은 책, 光武2年 戊戌 3月 18日條.

## 4. 金允植이 본 李在守亂

돌이켜 보면 1801년에 辛酉敎難이란 천주교 탄압이 있던 후, 백 년이 지난 1901년에 李在守亂이(辛丑敎難)이 일어났다. 나는 국내의 학계소식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李在守亂에 대하여 천주교 역사가나 제주도 향토사가에 의하여 상당히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金允植은 제주도 유배기간에 李在守亂의 와중에서 체험하고 견문한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기록은 제주도민과 천주교도의 양편에 대하여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비교적 공평하게 서술된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본다. 본론에서는 李在守亂의 전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로 그 원인에 대하여 金允植의 견문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金允植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李在守亂의 원인은 稅弊와 敎弊라고 이해되는데 일부에서는 敎弊의 측면을 부정하려는 견해가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辛丑年을 앞둔기 數年前에만 있어서도 或은 新制를 反對하고 或은 妖言者의 煽動으로 濟州島에서는 民心이 激動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光武2年(1898)부터는 土俗的인 原始信仰이 盛行하던 곳에 이러한 것들을 排擊하는 天主教가 들어가서 普及되게 되고 特히 光武4年(1900)부터는 王室의 財政을 主管하던 內藏院에서 그의 管轄島嶼인 이곳에 捧稅官 姜鳳憲을 보내어 從來에 없던 各種雜稅를 濫徵하게 되니 드디어 이 두가지가 主要原因이 되어 光武5年(1901) 陽三·四·五·六월에 걸친 辛丑년의 大敎難이 일어나게 되었다」<sup>18)</sup>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李在守亂의 주된 원인을 捧稅官 姜鳳憲에 의한 稅弊와 동시에 제주도의 「土俗的인 原始信仰」과 이를 배격하는 天主教와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大靜에서 「敎人之作弊」를 막기 위하여 조직되고, 李在守亂의 원동력으로 된 商務社는 「土俗的인 原始信仰」을 믿는 자들의 집단이란 말인가.

또한 다음과 같은 견해도 있다.

18) 柳洪烈, “濟州島에 있어서의 天主教迫害”, 《考宗沿下 西學受難의 研究》, pp. 377~8, 乙酉文化社, 1962.

「즉 지금까지는 이 敎難의 원인을 단순히 濟州島民들의 무식이나 혹은 선교사들과 그 敎人들의 作弊나 또는 擄稅官들의 수취행위 등 매우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측면만 규정함으로써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들을 덮어 두게 되었던 문제점들이 있다.」

즉 여기서는 敎弊나 稅弊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견해이고 이 외에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결국 이 敎難의 가장 큰 원인이라던 것이 일본 漁採인들이 대거 진출하여 와서 通漁活動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즉 그러한 일본인들의 개입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규명할 수밖에 없는 史料들이 많이 노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9)</sup>

만약 그렇다면 李在守亂은 제주도에 침입하여 도민들의 어업권을 침해는 일 본인과 결탁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의 선교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된다. 바꾸어 말한다면 외세의 앞잡이들의 난동이란 말이 된다.

물론 民軍 속에는 砲手가 3백명이 참가했고 그들은 모두 「山砲善放者」들이었다. 또 洋銃 50자루가 있었는데 이것은 「得於漁採幕日本人者」다. 당시 일본 어민들은 「敎人求銃 則日人不與曰 不可使外國人殺韓民也 民黨求銃 則日人樂與之 故致如是之多云」, 즉 敎人측이 총을 요구했을 때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인을 죽일 수 없다 하여 제공치 않았으나 民黨측이 요구했을 때는 쉽게 이에 응하였다 한다.<sup>20)</sup> 보는 바와 民軍은 무기의 일부를 일본어민으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러나 李在守亂의 주된 원인을 프랑스 선교사에 반대하는 일본어민들의 선동에 제주도민들이 추종했다고 직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설득성이 없다.

이와 같이 李在守亂의 주된 원인에서 敎弊를 극력 부정하고 그 대신 제주도민의 낙후한 「土俗的인 原始信仰」이나 제주도민을 일본 침략자와 직결시키는 견해는 李在守亂의 역사의 현장에서 자초지종 이 사건을 관찰해서 기록한 金允植

19) 金玉姬, “濟州島 天主教의 受容 展開過程”, 《耽羅文化》 第6號, 1987.

20) 앞에 든 책, 《續陰晴史》, 光武5年 辛丑 5月 19日條.

의 증언이나, 또 李在守亂이 진압된 후에 察理使로서 이 사건을 조사한 黃耆淵의 중앙정부에 대한 보고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그야말로 「冠履倒置」된 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제주도민들이 전도적으로 쫓기하여 이 民亂에 신명을 걸고 호응했는가. 吳大鉉을 狀頭로 하는 民軍은 姜遇伯이 인솔하는 東陳과 李在守가 인솔하는 西陣으로 나누어서 제주성에 육박했으며 開門狀頭 金南鶴을 선두로 한 城中民들의 호응을 받아 5월 28일에 입성하였다. 그 때 제주성 四門에 榜을 부쳤는데 이것이 바로 民軍측의 중심 슬로우건이며 당시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맺힌 民怨의 내용을 단적으로 집약한 것이라 하겠다.

(1) 「擗稅官之弊」, (2) 「教弊」 (3) 「戊戌倡義之罪」이다.<sup>21)</sup> 이러한 슬로우건이 광범한 제주도민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아직도 李秉輝의 虐政에 반대한 房星七亂의 휴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無爲舞策한 정부에서는 또다시 兵使출신의 탐관오리 李瑋珪를 牧使로 임명하여 1899년(光武3年) 12월에 부임하였다. 그는 부임 후 불과 20일만에 각종 수법으로 6만냥을 수탈하였으며 城門에는 날마다 그와 그 앞잡이의 죄를 규탄하는 도민들의 榜文이 나붙었다. 이 때에 수탈당한 백성들이 「多入西教」했다 한다. 이 자는 1900년(光武4年) 2월에 면직이 되자 贓錢 수만냥을 山地浦에서 배에 실어 뺑소니치려다가 전라도 按廉使 李道宰의 廉客 姜台欽에 의하여 저지되자 校卒들을 동원하여 주먹다짐이 벌어졌다. 姜台欽은 다음과 같이 항의하고 있다— 「이 돈은 제주도민의 膏血이다. 당연히 按廉使의 處分을 기다려서 民間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한 푼도 실어낼 수 없다.»<sup>22)</sup>

李瑋珪의 수탈에 이어서 왕실의 재정을 조달하기 위하여 파견된 內藏院卿 李容翊의 心腹인 姜鳳憲에 의한 稅弊가 계속되었다.

金允植의 표현을 빈다면 원래 제주도는 「此馬自開闢以來 素無王稅 瘠土謹耕 僅能自給 以其無稅之故 生殖頗繁 民皆樂生」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세금이 없고 겨우 자급자족하면서 백성들은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擗稅官 姜鳳憲이 파견되면서부터 인심이 흉흉하게 되었다. 田稅는 물론 家屋·樹木·家畜·漁船·漁網에까지 일일이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했으니 「山川草木 鳥獸魚

21) 같은 책, 光武5年 辛丑 5月 28日條.

22) 같은 책, 光武4年 庚子 2月 8日條.

敝齋 皆逢亂離 三邑錢竭 牛馬田土 價爲之減 如此騷擾 安得不起 安得不起鬧乎」 이것이 金允植이 역사의 현장에서 목격한 현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가림주구가 「與敎人相通」하여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일부 교도들은 가림주구에 협력하므로서 수탈한 몫의 일부를 분배받고 있다. 즉 稅弊와 敎弊가 결부되었다는 것이다.<sup>23)</sup>

따라서 李在守亂은 천주교 그 자체에 반대한 反天主教의 民亂이 아니라 프랑스 선교사가 갖고 있는 治外法權의인 특권을 등에 업고 도민 수탈에 협력한 일부 교도들의 작폐에 대한 反敎弊의 민란이다. 그런데 이 民亂의 주된 장본인 李瑋珪는 이미 본토로 돌아가고, 또 姜鳳憲도 민란의 조짐이 보이자 5월 11일에 본토로 도망쳤다. 여기서 제주도 내부에서 민군과 교도군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李在守亂은 제주도민들끼리 서로 증오하고 살육하게 된 비극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유혈의 비극을 자아낸 직접적인 단서는 무엇이었던가. 민군에 대항하여 교도들을 무장시키고 지휘한 자는 천주교에 입교한 崔亨順인데 그가 지휘한 교도들이 5월 17일 光陽에서 13명을 살해한 것이다. 5월 21일에 大靜郡守 蔡龜錫은 단신 民會所를 방문하여 해산을 설유하고 있는데 양자간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오고 갔다.<sup>24)</sup>

「民曰 반드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亨順 한 사람만 보내 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蔡曰 他事에 대해서는 모두 당신들의 所願하는 바에 따를 수 있지만 이 일만은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 일은 내가 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民曰 日前에 廣壤(光陽)에서 무고한 사람 13명을 죽인 것은 모두 崔의 所爲다. 어찌하여 崔漢 한 사람을 아끼면서 13명의 목숨을 보상하려 하지 않은가」

光陽에서 13명이 살해된 데 대한 民軍의 격분이 제주입성 후에 崔亨順을 비하여 천주교도들에 대한 대량 살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6월 10일에 察理使 黃耆淵이 江華 및 水原의 鎭衛隊를 인솔하며 入島한 후

23) 같은 책, 光武5年 辛丑 5月 9日條.

24) 같은 책, 光武5年 辛丑 5月 21日條.

正罪人으로서 吳大鉉·姜遇伯·李在守가 수감되었다. 이에 대하여 날마다 村民男女가 모여와서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酒肉飯餅을 차입하고 있는데 金允植은 이 광경을 보고 「可見稅 教弊之痛入骨髓也」라고 쓰고 있다.<sup>25)</sup>

필자는 앞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의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등에 업은 일부 교도들의 教弊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이에 유사한 사건은 제주도 특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1901년 7월 6일에 제주도 민요와 관련하여 프랑스 제독 포띠에(Potlier)는 재한 프랑스 신부들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다.<sup>26)</sup>

「이들 신부들에게는 지배의식이 있으며, 신도를 몇 모으기만 하면 관리의 횡포에서 신도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國法에 따르지 않게 하므로, 관리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기가 무섭게 이 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서슴치 않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엄청나기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반체제 집단화되어 가고 있고 조상숭배 제사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종교의 전래로 이미 비동한 적개심을 부채질함으로써 외국 것에 대한 미움이 가득합니다.」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프랑스인 자신의 이상과 같은 평가로 봐서 捧稅官의 가렴주구에 가담한 일부 교도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술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sup>27)</sup>

「이들은 성당 안에 형틀을 차려 놓고 그들의 가렴주구에 응하지 않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사형(私刑)을 가했다. 그들은 갖은 악행을 다한 후에는 그 성당 안으로 숨어 들었다. 곧 성당을 포리(捕吏)가 그 속까지 찾아들 수 없는 <노트르담의 사원>이기도 했다. 도적질을 하고도 그 성당에만 숨으면 면죄가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戊戌倡義之罪」란 슬로우건이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1898년의

25) 같은 책, 光武5年 辛丑 6月 17日條.

26) 정 끌로드 알랭, “高宗在位期間의 韓佛關係(1864~1907)”, 《韓國政治外交史學會論叢》第3輯 「韓佛外交史」 1886~1986. p. 99.

27) 李圭泰, 《歷史散策》, p. 362, 新太陽社, 1986.

房星七亂을 진압하기 위하여 제주성내에 倡義所를 설치한 데 대한 규탄이다. 물론 李在守亂에는 房星七亂에 참가한 잔존세력이 상당히 참가했다고 볼 수 있으며 倡義所 설치의 주동자인 宋斗玉과 洪在普 집에서는 민군에 의한 보복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此房星七亂黨 致憾於宋大靜<斗玉> 洪旌義<在普> 兩家大懼).<sup>28)</sup> 즉 房星七亂에서 제주도민이 항의한 民怨의 원인이 그대로 지속되어 李在守亂의 원인에 겹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李在守亂은 房星七亂에서 미진된 문제를 들고, 그것을 확대한 제주도민의 항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상과 같이 金允植은 1897년(光武2年) 1월 11일에 山地浦에 도착한 후 智島로 移配되어 1901년(光武5年) 7월 10일에 山城浦를 떠날 때까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보냈다. 그 간에 그는 1900년을 전후한 제주도 역사의 격동기를 몸소 체험했으며 房星七亂과 李在守亂에 대한 체험과 견문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가장 신빙성 있는 역사적 증언을 후세에 남겨 놓았다.

이상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南學黨을 핵심세력으로 한 房星七亂은 갑오년(1894년)에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전쟁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또한 李在守亂도 房星七亂에서 미진된 稅弊가 더욱 가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敎弊가 그에 겹쳐서 전도적으로 확대된 제주도민의 항거투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1987년 2월 3일 擱筆).

---

28) 앞에 든 책, 《續陰晴史》 光武5年 辛丑 5月 28日條.